

신기록 쏟아낸 광주·전남선수들...장애인체전 투혼 빛났다

광주, 한국신기록 12개·대회신기록 9개 수립 등 쾌거...종합 5위 전남, 육상 김정하 4관왕·오피선수단상 수상...원정 최다 금 획득

전국 장애인 체육인들의 스포츠 축제가 6일간의 열전 끝에 막을 내렸다.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30일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김해종합운동장을 포함해 창원·진주·거제 등 37개 경기장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총 31개 종목에 17개 시도 98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22개 종목에 248명의 선수를 파견한 광주는 총 203개 메달(금82·은62·동59)을 따내며 종합점수 12만 3597점, 최종 5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2년 연속 종합 5위에 자리한 광주는 지난 제43회 대회보다 14개 금메달을 추가하며 전국체전 출전 이래 최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는 양궁 5관왕 이화숙을 비롯해 4관왕 2명

(탁구 김성욱·사격 박승우), 3관왕 12명을 배출했고, 한국신기록 12개, 대회신기록 9개를 수립했다.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사격팀은 세계신기록도 작성했다.

총 7378점(금2·은5·동3)을 따낸 펜싱과 총 6714점(금7·은3·동5)을 기록한 양궁은 종목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제37회 대회까지 7연패를 달성했던 지적축구팀(동호인부)이 7년만에 다시 정상에 오르며 10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겸 시장장애인체육회장은 "선수단의 뜨거운 열정과 내실있는 장애인체육 운영이 뒷받침 돼 선수 참가 규모로는 17개 시도 중 13위인 광주가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남 선수단도 원정 최다 금메달을 따내는 등 활약했다.

31개 전 종목에 435명의 선수가 나선 전남은 총 180개 메달(금50·은55·동75)로 종합점수 10만 5665점을 올리며 원정 역대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전남은 육상 4관왕 김정하와 3관왕 6명, 2관왕 8명을 배출했고, 역도·육상·사이클 등에서 6개의 한국신기록과 1개의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또 경기단체의 추천으로 결정되는 오피선수단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을 수상했다. 특히 골볼 남자부 결승에 출전한 전남은 충남을 상대로 7-4 승리를 거두고 3연패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겸 도장애인체육회장은 "대회를 위해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원정 최고 득점과 최다 금메달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총 411개의 메달(총 24만 8090점)을 따낸 경기가 종합 1위를 기록했으며 2위 서울(총 21만 4075점)과 3위 경남(총 15만 7648점)이 뒤를 이었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다.



지난달 30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6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7년만에 다시 정상에 오르며 10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광주 지적축구팀(동호인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FC, KIA 우승 기운 받아 잔류 확정 짓는다

내일 홈서 대전과 K리그1 36R 경기 전남, 3일 K리그2 충북과 홈 최종전

광주FC가 잔류 확정을 위해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승리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36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현재 광주는 14승 2무 19패를 기록, 승점 44로 리그 8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35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0-1패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전구단 상대 승리를 놓친 광주는 잔류 확정도 뒤로 미뤘다.

유리한 고지에서 '생존싸움'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강등 '확률'은 남아있지만, 일단 디렉트 강등 가능성은 지워졌다.

광주는 앞선 대결에서 최하위 인천(승점 35)에 '승점 3'을 내주면서 9점 차가 됐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광주가 3연패, 인천이 3연승을 거두면 두 팀은 승점 44점으로 같아진다.

단 인천이 3연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과

의 맞대결을 남겨둔 11위 전북(승점 37)이 남은 경기에서 최대 43점을 쌓는 데 그치게 된다. 광주와 디렉트 강등 가능성은 사라졌다.

하지만 ACLF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 승강플레이오프도 피해야 한다.

11위 전북현대와 7점 차, 역시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10위에 있는 대구FC와는 승점 5점 차다.

경우의 수 계산 필요 없이 남은 3경기 모두 승리로 장식하는 게 광주가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

광주는 통산 전적에서는 11승 10무 12패로 대전에 근소한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4무 2패로 앞서있다.

광주는 키퍼레이어 변준수를 앞세워서 승리 사냥에 나선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변준수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경기 노력으로 앞선 인천전을 쉬면서 체력도 비축했다.

변준수는 친정팀 대전을 상대로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승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부상에서 회복한 베키노도 최전방을 책임지게 된

다. 올 시즌 대전을 상대로 골맛도 본 만큼 좋은 기운을 살려 광주 공격 전면에 선다.

이정규 수석코치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앞선 인천 원정에서 이정규 감독이 카드를 받으면서 경기 노력으로 이번 대전전을 지휘하지 못했다. 광주의 세트피스 상황을 책임졌던 이정규 수석코치가 어떤 모습으로 대전전을 이끌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3일 오후 2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충북청주FC를 상대로 홈 최종전을 치른다.

전남은 앞선 37라운드 경기에서 선두 FC안양을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 승점 51을 기록하고 있다. 3위 서울이랜드와 승점 4점 차, 4위 수원삼성(승점 53)과는 2점 차다.

앞을 보고 있는 전남이지만 뒤에서 추격하는 팀들도 만만치 않다. 6위 부산 아이파크와 김포FC가 나란히 승점 50점을 획득, 한 걸음 밖에 있다.

전남이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 있는 충북청주를 상대로 홈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된다.

“배구 늦게 한 게 후회될 만큼 애정 생겼죠”

대한장애인배구 대표팀 주장 정옥실 전남 여자 좌식배구팀 은메달 획득 앞둔 선수층에 3연패 무산 아쉬워

“양당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도 배구가 제 품이요.”

대한장애인배구 대표팀 주장 정옥실이 소속인 전남 여자 좌식배구팀과 종목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30일 막 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여자 좌식배구 OPEN에서 전남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약 9년 전 고향인 제주에서 택시 운행을 하다 우연히 손님으로 태운 제주 여자 좌식배구팀 선수가 체육관에 초대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때 '좌식배구'를 처음 접했다는 그는 “나는 장애인 스포츠가 있다는 걸 몰랐다. 나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장애' 관련 무언가에는 일부러 눈도 돌리지 않았었다”며 “선 한살에서야 배구를 시작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배구에 미친 듯 빠져든 정옥실이 지난 2022년 전남으로 이적한 후 팀은 날개를 단 듯 우승 행진을 이어나갔다. 전남은 지난 42회, 43회 장애인체전에 2연패를 달성했고 2024 울산전국장애인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3연패는 무산됐지만, 정옥실의 열정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배구에 대한 욕심과 열정은 그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운동하고 나서는 온몸이 다 아프고 성한 곳이 없다. 엉덩이로 체육관 바닥을 하도 쓸고 다녀 수시로 종기가 나 목욕탕도 못 가지지만 배구할 때만큼은 그 고통을 잊게 된다”고 웃어보였다.

2018년 대한장애인배구 국가대표로 발탁된 정옥실은 앞둔 선수층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내 좌식배구 인구가 다 실버(장년층)다. 부상 위험을 낮추는 바리새가 깔린 전용구장이 있



는 것도 아니고, 넓은 일반 체육관에서 하다보니 엉덩이 깔고 공 주우러 가는 것도 일”이라며 “나이 들어서만 하는 운동이 아닌데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신인 발굴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전남 여자 좌식배구팀 감독은 “대회 기간 선수들이 응급실 신세를 지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은메달을 얻을 수 있었다”며 “잘 준비해 내년 대회에서는 다시 왕좌를 되찾겠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광주·전남 '영웅시대' 회원들 “광주FC 승리 요정 되겠습니다”

내일 홈 경기 응원 나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K리그1 광주FC의 홈경기에 '특별한 응원단'이 뜬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의 광주·전남 지역 회원 20여명이 이날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를 펼치는 광주FC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

이번 응원전은 지난 10월 12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임영웅과 하나은행이 함께 연 자선축구대회에 광주FC 이희균과 정호연이 출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자선축구대회에서는 프로축구 FC서울의 '캡틴' 기성용이 주장인 '팀 기성용'과 임영웅이 이끄는 '팀 히어로'가 맞대결을 펼쳤다.

임영웅은 자신이 창단한 리턴즈FC 선수들과 조원희, 김영광 등 전 국가대표 출신 은퇴 선수들과 함께 뛰었다. 이희균과 정호연은 '팀 기성용' 선수로



뛰면서 '팀 히어로'를 상대로 4-3 승리를 거뒀다.

'영웅시대' 회원들은 “축구에 '진심'인 임영웅 덕분에 자연스럽게 축구 팬이 됐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팬클럽 '영웅시대' 관계자는 “자선축구대회에서 이희균, 정호연 선수의 열

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았다. 광주FC와 대회에 참여한 준 선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응원단을 모집했다”며 “이번 경기에서 광주가 반드시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의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의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11.17 ~ 12.1

광주예술의전당 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